“러시아군 내년초 우크라 침공할 수도”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분석
“10만 규모 100개 대대로 침공”
미 ‘침공 시나리오’ 유럽과 공유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내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군사전문매체 밀리터리타임스는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이 “러시아가 9만2천명이 넘는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했으며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부다노프 국장은 러시아의 예상 침공 경로가 담긴 지도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쪽 국경과 크림반도에서 포병·기갑부대의 공격을 전개하고 대규모 공수 부대의 작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우크라이나 남쪽에서는 흑해를 통해 수륙양용 부대가 진입하고 북쪽에서는 벨라루스 등을 통한 소규모 침공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공격이 실제로 벌어지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때보다 더 심각한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다노프 국장은 러시아가 지금처럼 군사적 긴장을 높여 우크라이나 내부 불안을 조성, 서방에 우호적인 우크라이나 정권을 교체하려 한다며 이런 방법으로 정권이 교체되지 않으면 군사적 침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러시아는 상황을 점점 더 위험하고 어렵게 만들어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을 만들려 한다”며 “러시아의 뜻대로 안 된다면 군대를 동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관련 소식통 2명을 인용,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나리오가 담긴 정보를 지난주 일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공유했다고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시나리오에는 러시아가 약 10만명으로 구성된 100개 전술 대대를 동원해 러시아와 크림반도, 벨라루스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진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부대는 거친 지형과 혹한의 조건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광범위한 영토를 장악하고 장기간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소식통들은 이들 전술 대대의 약 절반은 침공을 위해 이미 배치됐고, 침공 시 항공 지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미국이 공유한 정보에는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재집결하는 내년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울질할 수 있다는 미국의 평가도 포함됐다.

블룸버그는 또 러시아가 소련 시절 이후 유례없던 수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했으며 예비군의 역할은 전술 대대가 침공한 지역으로 투입돼 해당 영토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다만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예비군 소집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러시아는 미국을 비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국영 TV에서 “해외에서 군대를 데려온 사람들(미국)이 우리 영토에서 벌어지는 일에 ‘이례적인 군사 활동을 한다’고 비난한다”며 “공포를 조장하고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러시아의 의도를 명확히 모르지만, (병력을 집결해 침공하려는) 러시아의 각본은 안다”고 주장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8일 오히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현대적 살상 무기를 제공하고 흑해에서 연합훈련을 하면서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미 ‘10대 백인 총격범 무죄 평결’ 항의 시위 21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 커노샤에서 에릭 조던이란 이름의 남성이 딸 제이드(16)와 함께 소총을 들고 10대 백인 총격범 무죄 평결에 항의하는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이곳 법원에서는 지난 19일 배심원단이 작년 8월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에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카일 리튼하우스(18)에 대해 정당방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평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실종설’ 중국 펑솨이, IOC 위원장과 영상통화…“안전하게 잘있다”

실종설이 제기된 중국 테니스 스타 펑솨이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통해 직접 자신의 안전을 확인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펑솨이와 영상 통화를 했다고 IOC가 성명을 통해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펑솨이는 현재 베이징 집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으며,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받고 싶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친구 및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길 원한다면서도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스포츠인 테니스는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IOC는 전했다. 영상 통화는 약 30분간 이뤄졌으며, 엠마 테르호 IOC 선수위원장과 리링웨이 중국 IOC 위원이 배석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테르호 선수위원장은 영상 통화 후 “펑솨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 안심이 된다. 그녀는 여유로워 보였다”면서 “그녀가 편할 때 언제든지 연락을 취할 수 있다고 얘기해줬다”고 말했다. IOC는 또 영상 통화 마지막에 바흐 위원장이 내년 1월 베이징에 도착한 뒤 펑솨이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런던 템즈 강변 밝힌 크리스마스 조명 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템스강의 사우스 뱅크에서 시민들이 조명 밝힌 크리스마스 조형물을 구경하고 있다. 뒤로는 런던의 명물인 타워 브릿지가 보인다. /연합뉴스

키신저 “중국, 10년내 대만 전면공격 못해”

“미중 공통 의제 찾아 대립 피해야”

미국 외교의 거두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을 내놨다.

키신저 전 장관은 21일(현지시간) CNN에 방송에 출연, ‘하나의 중국’이라는 목표에도 “중국이 10년 이내에 대만에 전면적인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립이 계속해서 심화한다면 실질적인 자치권에 대한 대만의 능력을 약화하는 조치를 중국이 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이 대만 독립 움직임을 저지할 조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간에 무력을 통한 통일 시도 등 전면적인 군사 공격 가능성은 작다는 게 그의 인식이다.

이어 키신저 전 장관은 “모든 이들이 ‘중국 매파’가 되길 바라고 있다. 모두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기로 했고 그게 주요 목표라고 가정한다”며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에) 필연적으로 반드시 경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에도 양국 간 갈등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며 그 연장선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대중 외교 행보를 하고 있다는 해석인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로서 우리의 책임은 양국 간 경쟁이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공개적인 충돌로 바뀌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에겐 상식의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그것이 중국에 굴복을 뜻하는 게 아니라 공통적인 것으로 알려진 것들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라며 “대립을 피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지구 궤도 ‘솔라세일’ 30개월째 비행 중

대기 항력 버티며 687㎞ 고도 유지
미국 ‘행성협회’ 2019년 6월 발사

지구 궤도에서 돛을 펼치고 태양 빛의 복사압만으로 비행하는 솔라세일(solar sail)을 시험 중인 ‘라이트세일’(LightSail) 2호가 발사 30개월을 맞았지만, 여전히 성공적으로 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버스 투데이’를 비롯한 우주과학 전문매체 등에 따르면 미국의 비영리단체 ‘행성협회’(The Planetary Society)가 지난 2019년 6월에 발사한 큐브샛 라이트세일 2호는 현재 대기권의 열권 끝부분인 약 687㎞ 고도를 유지하고 있다.

라이트세일 2호는 빵 한 덩어리 크기의 초소형 위성으로, 녹음테이프 등에 이용되는 박막 필름인 ‘마일러’(Mylar)로 만든 권투 링 크기(32㎡) 돛을 펼치고 있다. 범선이 바람을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태양 빛의 입자인 광자(photon)의 복사압을 이용해 우주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솔라세일을 시험 중이다.

광자의 복사압은 처음에는 미약하나 시간이 흐르면서 축적되면 공기의 저항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 초고속으로 비행할 수 있게 해주는데, 태양(항성) 빛만 있으면 연료가 필요 없는 효율적인 미래의 우주비행 기술로 연구되고 있다. /연합뉴스